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 (3화)

사망을 이기는 희생적인 피를 만들기 위한 무서운 연단

1절: 다섯째 천사와 일곱째 천사

- 1) 동정녀로 오신 하나님의 사랑
- 2) 죽음의 문제
- 3) 불의 성신으로 변화된 심령과 육신
- 4) 희생적인 삶을 일관하는 일곱째 천사
- 5) 신미생의 목숨을 빼앗는 6.25전쟁

3) 불의 성신으로 변화된 심령과 육신

다섯째 천사가 아홉 살 때에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지 21년 만에 불의 성신을 체험하였는데, 그 불성신의 은혜 체험은 3년 동안 지속하였습니다. 그리고 6.25전쟁이 발생하였는데, 그 남북 전쟁 중에 불성신의 은혜를 이어 생수 은혜로 바뀌는 체험을 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로 말하면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십일조를 꼭꼭 드리고 도둑질 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외형으로는 훌륭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새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섯째 천사의 맘속에 들어 계시기에는 일렀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장성하여 공장을 경영할 때도 교회에 더욱 열심히 봉사하였는데, 예 배당 청소에 걸레질 같은 것을 도맡아 하였고 예배 보는 날은 문지기 안내 그 밖에 모든 힘든 일을 하기도 사양치 않고 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기계적으로 한 것뿐이었습니다.

다섯째 천사는 외형적으로는 별 흠 잡을 것 없는 기독교인이지만 그때까지 중심에 변화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암만 노력하여도 헬기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한 것처럼 다섯째 천사도 마침내 자랑하려면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부흥강사(復興講師)의 입을 빌려 다섯째 천사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성신(聖神)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불쌍하다. 성신 받지 못한

신자는 마치 기름 치지 아니한 기계와 같아서 삐걱덕 소리가 많이 난다. 성신 받지 못한 사람은 가정에서도 삐걱덕 소리가 나고 교회에서도 삐걱덕 소리가 난다.”

이 평범한 말이 다섯째 천사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아니, 감동을 시켰다기보다 차라리 가슴을 찢었다고 하는 편이 옳을 것입니다. 이는 성신의 역사였습니다. ‘아! 내게 아직 삐걱덕 소리가 많이 나는 것은 나도 성신 받지 못한 까닭이라.’ 하고 다섯째 천사는 스스로 반성하였습니다. 이 찢림을 받고 다섯째 천사는 성신 받기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압박 강가에서 씨름하던 야곱의 심정으로 결사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밤낮 사흘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사흘이 되기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더니 마지막 날 새벽 4시에 다섯째 천사의 마음은 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이십일 년 동안 다섯째 천사는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십일조를 드리고 십계명을 그대로 다 지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되지도 못한 주제에 된 줄로 알고 그런 착각 속에 살아왔던 것입니다. 다섯째 천사는 스스로를 ‘나는 잘 믿는 사람이거나’라고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밝은 빛이 다섯째 천사의 마음에 비추지니, 다섯째 천사는 그의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은 것을 깨달게 된 것입니다. 그 자신의 맘속에 모든 악독과 더러운 것이 그득 차 있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는 몸으로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하여 서른 살의 다섯째 천사는 이 모든 죄를 다 통회하고 자복하였습니다. 자복하면 또 죄가 생각나고 자복하면 또 죄가 나오고 모든 숨었던 죄가 전부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주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죄, 남을 참으로 사랑하지 못한 죄, 한이 없는 모든 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다섯째 천사의 심정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고 배알이 끊어지듯 하여 천지가 아득하고 가슴은 막막하

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었습니다. 다섯째 천사의 많고 많은 죄를 다 살려버리고 나니 이윽고 그 자신의 중심이 서서히 뜨거워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심이 뜨거워질 뿐 아니라 몸까지 떨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그 자신의 몸조차 스스로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부들부들 전신이 떨리었던 것입니다. 중심에는 불이 붙어 뜨겁고 몸은 미친 듯이 떨려서, 다섯째 천사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얼마 동안 그 모양대로 떨리더니 후에는 몸이 상쾌하고 정신이 새로워지며 마음에 지극한 평안과 한없는 기쁨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아-아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불성신으로 변화를 입은 후, 다섯째 천사는 듣는 귀와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미국에 가서 음악을 공부하였다는 여자, 이태리 가서 음악을 공부하였다는 여자들이 목청을 뽐으며 노래를 부를 때에 참 듣기 좋았지만, 성신을 받은 후에는 노래하는 자의 심령상태에 따라 시끄러운 소음으로 들리기도 하고 곱게 들리기도 하였습니다.

또 성신 받고 거듭난 사람들의 찬미는 음악학교도 못 나오고 곡조도 잘 맞지 않아도 그 음성은 은혜스럽고 아름답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신 받기 전에는 얼굴이 예쁘고 멋지게 차린 사람을 보면 그것이 좋아보였지만, 성신 받은 후에는 그런 사람들의 심령상태에 따라 온갖 악독한 죄악으로 가득 찬 추한 얼굴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게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섯째 천사의 눈은 거듭난 사람의 얼굴이 못 생기고 새까맣게 되었어도 그 얼굴에는 천사와 같이 거룩하고 화평하고 환한 빛이 나타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천사의 귀는 거듭난 사람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의 진액이 되는 불성신은 중심을 뜨겁게 하고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는 동시에, 겉잡을 수 없는 진동으로 몸의 세포마저 바꾸어 신령한 몸을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섯째 천사는 스스로 느끼기를, ‘성신의 역사가 육체까지 변화시키는구나!’ 하고 탄복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다

4) 희생적인 삶을 일관하는 일곱째 천사

하나님께서 불의 성신으로 서른 살 전후의 다섯째 천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시는 때에, 일곱째 천사는 중고등 학생의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성신의 은혜를 다섯째 천사에게 강제적으로 부여하시는 방법을 취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직접 다섯째 천사의 마음을 점령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천사의 마음을 점령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일곱째 천사의 희생적인 삶을 유도하는 쪽으로 방법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귀 영과 하나님 영의 병존체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여하면 사람 속에 있는 마귀 영이 먼저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쪼아 먹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 속에 마귀 영이 마귀의 마음이요, 하나님 영은 양심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사람 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지만, 항상 마귀의 마음이 양심(하나님의 마음)을 지배하여 이기적이고 욕심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천사의 마음을 점령하기 위한 예비단계로 일곱째 천사의 희생적인 삶을 유도하여 그 체내의 피에 희생적인 마음정보를 연속해서 입력시키는 데 엄청난 공력을 쏟았습니다. 일곱째 천사의 희생적인 피를 키워 마음속의 ‘나(我)’라는 주체의식이라는 마귀 영과 싸워 이

길 수 있을 때, 비로소 일곱째 천사는 마귀 영과 하나님 영의 병존체(인간 상태)에서 벗어나 순수한 하나님의 영만 남는 존재로서 빛의 하나님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마귀와 사망을 이기는 희생적인 피를 만들기까지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무서운 연단이 따르며 극도의 인내심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일곱째 천사의 희생생활은 어릴 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웃에 굶는 사람이 있으면, 독에 있는 쌀을 바가지로 긁어다가 아무도 모르게 굶주리는 집안의 부억에다가 갖다놓곤 하였습니다. 일곱째 천사는 집안 식구들도 먹기에도 부족한 쌀을 어머니 몰래 퍼다 이웃집에 준 대가를 치르기 위한 마음에서 추운 겨울에 눈이 내리는 날에도 새벽 일찍이 지게를 지고 장터에 나가 빨감을 팔기도 하였습니다.

초등학생이었던 일곱째 천사는 방과 후 산에 가서 나무를 하여 집 뜰 안에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 장작을 읍내에 내다 팔아가게 보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장작을 함에 겨울 정도로 짙어지고, 눈이 와서 무릎까지 빠지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2km가 넘는 눈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읍내에까지 가서 팔아 오곤 하였습니다. 그 추운 눈 덮인 길을 공공거리며 고통을 참고 견디며 중간쯤 가다 보면 미투리 짚신 안으로 물이 스며 들어와 발이 시려 깨어져 나가는 것 같고, 손은 손대로 시려 손끝을 칼로 베어내는 듯 극심한 고통이 가해 오는 그 걸 참고 한 발짝씩 나아갔습니다. 결코 후퇴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 줘 쉬어야겠는데, 온통 눈으로 덮인 상태라 피할 장소도 설 곳도 없어 이중 삼중으로 더해지는 고통에 엉엉 울면서도 기어이 읍에까지 가서 장작을 팔아오곤 했던 것입니다. 보통 아이들 같으면 그렇게 혼이 나면 그 다음날에는 안 가든지, 만약 가더라도 좀 가볍게 짊어지고 가겠지 만, 그렇게 혼이 나고도 여전히 전날의 양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게 힘



지게를 지고 장터로 나가 빨감을 팔았다

에 겹도록 짊어지고 또 울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항상 극한에 달하는 고생을 하며 고통을 참고 견디는 시련과 역경을 견디어나갔던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 많았고, 일을 해도 다른 사람보다는 더 많이 더 열심히 하였으며, 짐을 짊어져도 언제나 힘에 겨울 정도로 짊어지고 공공거리며 오금을 제대로 옮기지 못할 정도로 지고 다니는 습성이 늘 몸에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기꺼이 스스로 자신을 짓이기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나무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번 목표를 세우면 꾸준히 했던 것입니다. 잠시라도 집에 서 드러누워 쉬거나 놀지 않는 성품이 있으며, 할 일이 없으면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다든지 하였지 멍하게 지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또 초등학교 5학년 때, 집안의 온갖 곳은일과 부엌일을 도맡아 하시는 어머니가 힘들게 물을 길어오는 것이 마음에 걸려, 집 뒤뜰에서 우물을 토요일 오후부터 파기 시작하여 일요일 저녁까지 어른 키로 세 길이나 파고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올라와서 밥을 먹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박한수

조희성 구세주님과의 인연(2)

주님의 행적과 연관된 나의 삶의 편린들이 신앙에 도움이 될 줄이야



어려서부터 영생을 소망으로 삼다

제 고향은 북한 함흥입니다. 거기서 사립(私立)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지은 학교인데 모두 미국식으로 너무 예쁘게 지은 학

교입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교 이름이 영생여자소학교인 걸 보면 영생(永生)과 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이 있는가 봅니다.

우리집은 동네에서 예수집이라고 불렀는데 예수를 독실히 믿는 집이라 동네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던 모양입니다. 할머니 아버지를 거쳐 저까지 예수를 믿었으니 삼 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이었고, 당시 이모할머니가 전도사를 하였으니 어떤 집안인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영생이라는 글자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혜선아, 성경에는 주인이 있다. 성경의 주인이 와야 성경을 해석하지 사람은 성경 못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어머니도 가장 신앙촌까지 갔다 오셨고, 저의 아버지와 할머니는 덕소 신앙촌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저 혼자 승리제단에 나오고 있는데 조상을 비롯한 제 가족 모두를 구원할 책임이 저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니 막중한 책임감이 생깁니다. 제가 영생을 얻으면 저의 조상은 물론 가족들도 다 구원을 얻게 되는 참진리이니 더욱 열심히 신앙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졌습니다.

할머니와 부모님 등 조상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할머니,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던 성경의 주인공 제가 만났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이 기다리시던 정도령 만났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기어이 조상님들

이 이루지 못한 영생의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꼭 효도하겠습니다.

저는 소사에서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86세인데 나이 먹도록 살 것이라 생각 못 했습니다. 저 지금 건강합니다.

기어이 조상님들께 효도하기 위해서 영생하겠습니다.

이제 죽지 않는 세상이 왔습니다. 영생을 외치셨던 박태선 영모님께서 “우리 세대에는 영생이 안 된다. 후대에 있을 일이다”라고 하실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라고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수십 년을 영생의 희망을 안고 영모님 따라 왔는데 그 말씀에 너무 실망했지만 마음속

으로는 나는 꼭 영생활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실망감에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기 시작해서 오만가지 병이 다 생겼었습니다.

영모님께서 “내가 옥에 갇혀 있는 하나님을 석방시켜 모처에 모셔왔다”라는 말씀이 너무 귀중한 말씀이라 제단 오는 날까지 아무와도 의논도 하지 않고 승리제단에 왔는데 주님 뵙고서 영모님한테서 풀리지 않았던 모든 숙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주님 뵙는 그 날 ‘나는 이제 살았다. 이곳이 영생하는 곳이구나. 나는 이제 영생을 찾았다. 나는 살았다’ 마음속으로 너무 기뻐했습니다. 다음 세대에 영생이 이루어진다는 말씀 듣고 너무 실망한 나머지 생겼던 병들, 어느 병원에서 고치지 못한 그러한 불치병들이 주님

뵙는 순간 다 나아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사실 날아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장이 나빠서 계단도 못 오르면 몸이 역곡역 계단을 두 계단씩 뛰어다녔으니 말입니다.

♪♪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내 주님 항상 나와 동행하시니 감사함뿐입니다” ♪

주님은 나의 생명, 주님은 나의 희망,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께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김혜선 권사 / 본부제단